

95년도 라스커 의학연구상 수상

피터 도허티 등 생의학 연구자 6명 영광



▲라스커상 수상자들 : 왼쪽부터 조단 구터만(라스커상 사무국장), 돈 윌리, 로프 진커나겔, 피터 도허티, 잭 스트로밍거, 에밀 우나누에, 배리 마샬, 마이클 드바키(라스커상 심사위원장)

뉴욕에 본부를 둔 매리 라스커재단은 1995년 9월 29일 뉴욕시내 피에르호텔에서 개최된 권위있는 알버트 라스커 의학연구상 개설 50주년 기념식에서 T세포의 면역인식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공헌을 한 피터 도허티 등 5명의 면역학자들을 포함하여 6명의 생의학연구자들에게 1995년도 라스커상을 수여했으며 의학연구자 금지원을 주창한 미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하트필드상원의원에게 공공서비스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 중에서 테네시대학 의대의 소아과 및 병리학교수인 도허티, 하버드대학 분자 및 세포생물학과 교수인 잭 스트로밍거,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 의대의 병리학교수인 에밀 우나누에, 하버드대학 분자 및 세포생물학과 과장인 돈 윌리, 스위스 취리히대학 실험면역학 연구소장인 로프 진커나겔은 기초연구부문에 수상했고 버지니아대학 내과외과 임상교수인 배리 마샬은 소화성 궤양이 박테리아(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발생한다는 사실의 발견으로 임상연구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각각 작은 조상(彫像)과 상금을 받았는데 마샬은 2만5천달러 그리고 기초연구부문의 수상자들은 5만달러를 나눠 갖게 되었다. 그러나 하트필드는 상원위원이라는 신분때문에 2만5천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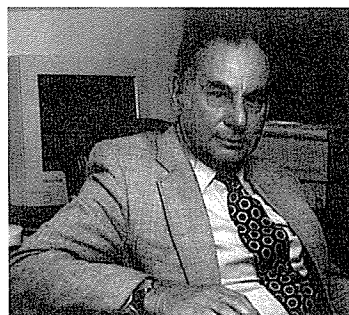
있다.

그런데 라스커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흔히 계속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의 수를 거론한다. 지금까지 5명의 라스커상 수상자 중 한명꼴인 52명이 노벨상을 받았다. 더욱이 라스커상 심사위원회는 이미 노벨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라스커상을 수여하기를 주저한다는 점이다. 라스커상 프로그램의 책임자이며 텍사스대학 의대 임상면역학 및 생물요법학과 과장인 조단 구터만은 "심사위원회는 노벨상을 받은 사

람들에게는 라스커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라스커상을 타기 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은 2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에서 1930년 노벨상을 받은 칼란트슈타이너는 인간의 혈액형 발견의 공로로 그가 별세한 뒤 1946년 라스커상을 추서했고 생물연소 과정과 관련된 여러 발견으로 1937년 노벨상을 받은 알버트 센트조르지에게는 1954년 심장혈관질환 분야의 뛰어난 연구업적으로 라스커상을 수여했다.

'96 프리스틀리메달, 엘리엘 수상

40년간 분자의 3차원 모양과 역할 규명



▲어네스트 엘리엘

(Ernest L. Eliel)을 1996년 프리스틀리 메달수상자로 지명했다. 엘리엘은 1996년 3월 뉴올린스에서 열리는 ACS 전국회의에서 화학 분야에서는 미국 최고의 상인 프리스틀리

미국화학회(ACS)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명예교수인 유기화학자 엘리엘

리 금메달을 받는다. 1992년에 ACS회장을 역임한 엘리엘은 지난 40년간

분자의 3차원 모양과 이 구조의 화학반응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엘리엘은 또 여러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입체적인 배열을 다루는 학문인 분자의 입체화학에 관한 교과서(E.L. Eliel, 「Stereochemistry of Carbon Compounds」, New York, McGraw Hill, 1962)의 저자로서도 유명하다. 1962년 발행의 이 교과서는 5개 국어로 번역되었는데 1994년 완전히 개정된 교과서(E. L. Eliel and S.H. Wilen, 「Stereochemistry of Organic Compound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94)를 펴냈다. 그는 이 책이 과거와 미래세대의 화학자를 가르치는 외에도 반응 메커니즘과 화학합성과 같은 분야를 추구하는 제약분야에 종사하는 화학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쾰른에서 태어난 엘리엘은 1938년 독일을 떠나 쿠바로 이민을 간 뒤 아바나대학에서 화학의 학사 학위를 받았다. 2년뒤 그는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화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뒤 노틀담대학에서 1972년까지 가르치고 노스 캐롤라이나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95 윌리엄 콜리연구상 수상

말콤 A.S. 무어 등 번역학자 3명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암연구협회(CRI)는 기초 번역학부문에서 뉴욕소재 슬론케터링 암센터 혈액학자 말콤 A.S. 무어와 하버드의대 혈액연구센터의 병리학교수 티모디 스프링거 그리고 임상번역학부문에서 스위스 로잔

소재 중앙학센터 소장 페르디 J. 레제네에게 1995년도 윌리엄 콜리 연구상을 수여했다.

CRI는 암번역학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다. 이 분야의 뛰어난 업적을 인정하는 이 협회의 연례수상제도는 중앙



▲미 암연구협회를 탄 말콤 무어(左)와 티모디 스프링거

백신분야를 개척한 윌리엄 B. 콜리를 기리기 위해 1975년에 설립되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태생의 무어(51세)는 사람의 과립백혈구 콜로니 자극인자(G-CSF)의 발견으로 수상되었는데 이 분자들은 몸 속에서 감염과 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생산과 기능을 조절한다. 무어는 암의 화학요법의 보조약으로 널리 사용되는 G-CSF는 항암약으로 파괴된 혈액 및 골수 속의 과립백혈구의 회복을 돕는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하버드대학에서 분자생물학과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은 스프링거(47세)는 유착분자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규제물질그룹의

이해를 도운 공헌으로 수상했다. 그의 연구실은 백혈구 인테그린과 그 배위자인 ICAM-1, ICAM-2, ICAM-3로 불리는 분자를 발견했다. 이 분자들은 각종 염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면역세포가 감염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교통 신호분자의 역할을 한다.

한편 브뤼셀의 자유대학에서 1964년 의학사학위와 1976년 박사학위를 받은 벨기에 태생의 레제네(56세)는 특별히 사지에 국한된 종양에 대한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사지관류법을 개발한 공로로 수상되었다.

CRI 당국에 의하면 이 방법으로 말기의 악성흑색종 환자중 90% 이상이 병의 차도가 생겼다. ①7